

# 한국사회 내 탈북인 예술단체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및 가치에 관한 연구

나경아\* · 한석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University of Surrey, M. A.\*\*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탈북인 예술단체의 성격 및 공연 현황

IV. 탈북인 예술단체의 사회문화적 의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남북한 공연예술 교류 사업은 1985년 최초로 이루어진 서울과 평양 교환방문 공연과 1990년 통일 음악회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전개되어왔다. 그 중 대부분의 교류행사는 양국의 정치적 관계 및 경제적 실용주의에 따라 제한되어 행해졌다. 하지만 2000년 이후로 한국사회 내에서 북한과의 정치경제적 협약에서 벗어난 민간 차원에서의 북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설립되었으며, 지역축제 및 행사초청공연에서 북한 예술을 종종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단체들은 실제로 공연활동을 위해 북한에서 초청을 받아온 북한 국적의 예술단이 아니라 남한으로 이주해 온 탈북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이다. ‘평양예술단’, ‘평양민속예술단’, ‘평양민족예술단’, ‘평양통일예술단’, ‘금강산예술단’, ‘백두산예술단’ 등과 같은 단체명에서 나타나듯, 한국사회 내 탈북인 예술단체들은 북한예술을 한국사회에 소개하고 있는 영리 공연단체들이다. 이들은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민족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미래 통일사회 조성에 이바지 한다는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남북의 변화무쌍한 정치적 관계로 인해 단발로

그치게 되는 행사 위주 교류였으며 예술가 간의 긴밀하고 자율적인 교류는 제한되어왔다. 그러나 탈북인 예술단체의 활동은 과거의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남북 문화예술교류의 한계점을 뛰어 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북한예술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북한무용의 형태나 특질에 관한 연구(이병옥, 2002; 황경숙, 1994), 북한무용의 수용방향(장순향, 2004)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졌으며, 남북 사회문화 교류 관점에서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와 동질성 회복 방안(김상철, 2003)과 남북 공연예술교류의 전개 양상 및 전망(민경찬, 2000; 박영정, 2003; 이영미, 2003) 등 다각도로 논의되어온 바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 내 탈북인 예술단체는 과거 남북 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한국에 소개된 북한 국적의 예술단과는 다른 사회적 배경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녔기에 선행연구에서 소개된 북한예술단체와는 차별화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해야 할 것이다. 탈북인 예술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발견과 국내 예술 활동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며 그것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사회문화적 시각을 통해 예술작품의 의미를 생성하고 파악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용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다. 무용 연구는 형식주의적 혹은 미학적 관점에서 내적 원리와 가치 이해를 넘어서 무용작품의 배경이 되는 외부적 요인, 즉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과의 관계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현상은 무용이 인간의 몸과 움직임을 다루는 복합 영역, 즉 신체 움직임에 대한 역학, 생리, 심리 등 자연과학 분야와 관련되어 연구될 뿐만 아니라 동작 상호의 결합원리 및 작품의 구조, 무용의 역사적 생성과정, 사회적 기능 등 예술로서의 무용에 관계되는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이다.<sup>1)</sup>

특정한 역사,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무용은 춤 양식과 스타일에 따라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 나아가 움직임 구조 내 형성된 의미도 춤이 만들어진 시기가 아닌 무용수 혹은 관찰자가 어디서 언제 받아들이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파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춤 현상은 시대적 환경과 문화 그리고 참가자의 개별적 경험에 의해 다른 의미가 형성 가능한 사회문화적 복합 구성물이다. 다시 말하자면,

1) 나경아(2005). 무용의 학문정립에 관한 고찰. 『민족무용』, 제7호, 11-32.

춤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부 언어가 배제된 움직임의 형식적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context)과 춤(text)의 관계 파악 역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내 탈북인 예술단체의 활동과 레파토리 분석을 통해 두 가지 방향으로 사회문화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탈북인 예술단체의 공연 활동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한국 문화적 특성을 정의 내려 보는 것이다. 현재 지역 사회 행사에 정기적으로 초청을 받고, 한 단체에서 연간 100여회의 공연을 한다는 것은 소수문화단체로서는 실로 경이로운 실적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성과는 예술 활동을 넘어 특정한 사회문화 현상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둘째, 탈북인 예술단체의 활동이 한국사회에서 창출한 새로운 가치를 조명하는 것이다. 이는 미적, 사회적 측면 포함하는 것이며, 이들이 보여주게 될 새로운 문화적 특성을 연관지우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북한예술 및 탈북인 예술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문헌조사와 함께 현재 한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기관 담당자 및 단원과 심층면담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분단이라는 역사적·정치적 정황과 관련하여, 특수한 사회적 현상으로서 ‘탈북’인들의 입국 증가 추세와 함께 그들의 사회적 활동분야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의 사회활동의 하나로 예술활동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탈북인 예술단체 중 2005년 창단이후 연간 공연 횟수가 가장 많고, 2007년 사단법인 승인, 2009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와 연관된 활동을 하고 있는 탈북인 예술단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행사 빈도와 초청행사의 특성을 분류하였으며, 무용공연 레파토리 분석을 통해 이들의 사회 문화적 양상을 파악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한국사회 내 탈북인 예술단체의 활동은 매우 복잡한 사회적 변인이 내포되어 있다. 여기에는 남한과 북한간의 역사적 관계 및 정치적·경제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화와 동질성 회복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탈북인 예술단체의 공연활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예술적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선 탈북인 예술 활동과 관계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남북분단 현실이다. 남한과 북한 측 모두 통일의 당위성을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통일이라는 합의를점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남과 북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체제, 가치관의 극단적인 차이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주변국의 국제적 정세에 의해 남북관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기인한다.

분단기간이 길어지면서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한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차원의 정치, 경제적 경합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교류에 의한 협력관계 형성에 의해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화 지면에 담고 있는 민족적 동질성은 남과 북이 하나임을 느끼고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남북의 사회문화 교류 및 협력은 정치, 경제 분야를 제외한 학술, 문화, 예술, 종교, 체육, 언론, 출판을 포함하는 분야를 지칭한다<sup>2)</sup>. 남북한 공연예술 교류사업은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과 함께 이루어진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 제 6공화국의 북방정책 수립 후 1990년 평양과 서울에서 펼쳐진 통일음악회를 기점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 대중가수의 북한에서의 공연활동, 남북 방송매체의 비교적 자유로운 전파와 같은 좀 더 개방적 교류 활동으로 나아갔다<sup>3)</sup>.

남북한 공연예술에 관한 연구(민경찬, 2000; 박영정, 2003; 이영미, 2003)를 통해 남북 공연예술 교류의 성과와 평가가 조명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의 관점으로 좁혀질 수 있다. 첫째, 공연예술 교류사업이 남북의 직·간접지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남북의 정치경제적 관계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예술가들의 의견교환과 같은 적극적 교류에는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 김상철(2003).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와 동질성 회복방안. 『복지행정연구』, 제 19집, 297-321.

3) 박영정(2003). 『남북한 공연예술의 대화 : 춘향전과 초기 교류공연』. 서울 : 시공사.

둘째, 이러한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반세기의 분단체제동안 남북 예술이 각기 다른 문화사적 흐름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그 결과 문화적 이질성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4)</sup>. 남북 예술교류에서 드러난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동시에 정치적 제약에서 벗어난 민간중심의 충분한 교류 활동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위와 같은 남북의 정치·경제적 정황 속에서 문화예술 교류 양상은 북한예술이 한국사회로 소개되고 진출되기를 원하는 탈북인 예술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충분히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설명한다. 하지만 북한예술을 전파하고 있는 예술단체의 주체가 탈북인이라는 점에서 북한예술 연구와는 다른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북한예술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남북 공연예술 교류에 참가한 북한예술단과는 상이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한국사회 내 탈북인 현황과 이들의 예술 활동과 관련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등 다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복지기관, 교육활동, 학술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중 탈북인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민족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이질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통일부에 의하면 2007년 12월까지 조사된 국내 누적 탈북 인구수는 약 12,000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09년 현재 약 15,000명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9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탈북자 수는 2002년 이후로는 1,000명을 육박하고 2006년 이후로는 2,000명을 상회했다(표 1).

성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는 남성 탈북자 비중이 높았으나, 2000년 이후 여성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로 2007년 총 입국탈북자 중 여성이 78%를 달하였다. 여성 탈북자 증가의 원인은 두 가지 이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북한에서는 남성의 군입대 문제로 여성이 가정양육자로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경제난으로 인하여

4) 이영미(2003). 『남북한 공연예술의 대화 : 춘향전과 초기 교류공연』. 서울 : 시공사.

〈표 1〉 연도별, 성별 탈북자 통계자료

(단위: 명)

구분	~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합계
남	831	90	180	294	514	468	625	422	510	569	4,503
여	116	58	132	289	625	813	1,269	961	1,509	1,979	7,751
합계	947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2,019	2,548	12,254

(통일부, 『통일백서』, 2008, p.228)

여성의 탈북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가족 단위, 특히 모자녀 형태의 탈북현상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탈북 현상의 초기에는 대부분 단독으로서 남성 청장년층이 대다수였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개인에서 가족이나 집단적 형태로 나타났다. 가족 단위로 넘어온 경우 상당수가 모자녀의 형태로 진행되었다<sup>5)</sup>.

탈북 동기는 북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표 2〉의 탈북자들의 재북시 직업 분포에서도 드러난다. 탈북자의 재북 직업별 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49%가 무직자였으며 일반노동자가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관리직, 전문직, 예체능이나 군인 출신은 경제적 문제가 비교적 해결 가능하나, 뚜렷한 직장이 없거나 노동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해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sup>6)</sup>.

〈표 2〉 재북 직업별 새터민 입국현황

(단위: 명)

구분	관리직	전문직	예술·체육	노동자	봉사분야	군인	무직·부양	합계
'01년	22	26	16	277	43	7	192	583
'02년	32	45	18	503	72	11	458	1,139
'03년	37	21	13	471	52	8	684	1,281
'04년	37	24	15	732	46	11	1,029	1,894
'05년	5	24	23	533	25	12	761	1,383
'06년	34	32	8	726	72	9	1,138	2,019

(정주신, 『탈북자 문제의 의식』, 2007, p.108)

5) 김성구(2008). 『국내외 북한이탈주민 실상과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Ibid.

탈북자의 국내 정착 현황을 살펴보면 약 60%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50% 이상이 제조업 분야에 단순 노무직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7)</sup>. 그동안 국내에 입국·거주하는 탈북인은 단순히 규모만 증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점차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90년대 입국한 탈북인들이 제조업·농업·서비스업에 종사한 것에 비해 최근에는 시인, 보험설계사, 예술 공연단원으로 활약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탈북인의 한국 사회 내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탈북단체의 규모와 활동범위가 조직화되고 있으며, 2008년 3월에는 28개의 탈북단체가 모여 탈북인단체총연합회를 창립하는데 이르렀다. 이러한 탈북단체 중 탈북예술인총연합회는 2007년 7월 최초 문화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승인을 받고 탈북인 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08년 12월에는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일자리 참여 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국내 문화 단체 통틀어 2번째로 인증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탈북인 예술단체가 한국사회 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시대에 탈북인 예술단체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그 가치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북인 예술 활동의 사회문화적 의의를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조사와 함께 탈북인 예술단체 중 한 곳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선정된 단체는 '평양예술단'으로서 단체의 대표자는 현재 탈북예술인총연합회의 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평양예술단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북한에서 예술 활동을 했던 재능 있는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탈북단체로는 최초로 2007년 문화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승인되었고, 2009년은 노동부 산하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부기관 및 지자체, 민간단체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날로 성장해나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양예술단은 북한문화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00여회의 활발한 공연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단체의 설립목적 및 운영방향 등이 본 연구의 목적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평양예술단은 탈북인 예술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 사료되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선정된 탈북인 예술단체인 평양예술단의 성격 및 공연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체 홍보 팜플렛, 인터넷 공식

7) 국가인권위원회(2007). 『새터민 정착과정 실태조사』.

홈페이지, 언론기사를 통한 문헌조사와 예술단원 및 단체 관계자, 대표자와의 심층 면담을 병행하였다.

### III. 탈북인 예술단체의 성격 및 공연 현황

#### 1. '평양예술단'의 연혁 및 구성

2005년 설립된 평양예술단은 국내에서 연간 약 100여회의 활발한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는 탈북인 예술단체로 북한에서 예술 활동을 했던 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단 홍보 팸플릿을 통해 평양예술단의 설립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우리사회에서도 다문화 사회 즉, 외국인근로자들과 중국동포들 탈북자들 등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고 있으며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정책적인 과제로 나르고 있는 상황에서, 남과 북의 문화도 이제는 이질감 극복 해소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며, 또한 그렇게 할 때 남과 북의 문화적인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9 평양예술단 홍보팸플릿 중)

평양예술단은 남북문화의 이질성 극복 과정을 단순히 북한과 남한 간 예술의 차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즉 상생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문화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며 북한음악도 남한사람들이 이해하고 좋아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sup>8)</sup> 예술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홍보자료의 단원현황을 살펴보면 17명의 예술단원 중 가수 5명, 무용수 10명, 아코디언연주자 1명, 코믹연기자(만담공연)1명으로 구성되었다. 2008년과 비교할 때, 가수 4명과 무용수 1명만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1/3 이상의 단원이 교체되었음이 알 수 있다.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인 무용수의 수적 부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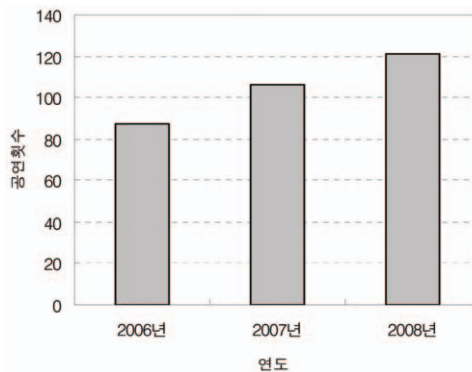
8) 평양예술단(2009). 홍보팸플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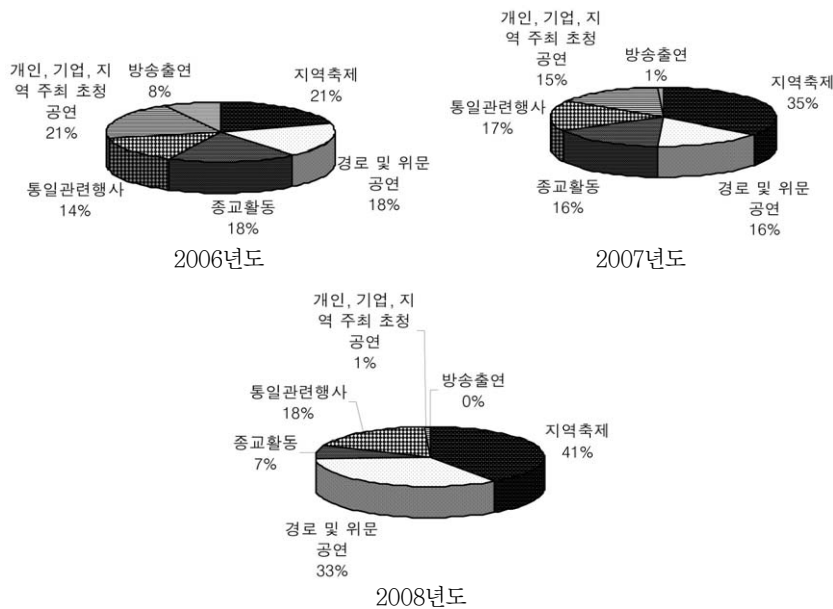
채우고 기량 향상을 위해 2008년 12월 오디션을 통해 한국인 무용수 4명이 신입단원으로 입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2. '평양예술단'의 공연활동현황

평양예술단 공식 홈페이지와 홍보 팸플렛의 문헌고찰을 통해 평양예술단의 2006~2008년간 공연활동현황을 조사하였다. 연간 공연 횟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 87번, 2007년 106번, 2008년 121번으로 공연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이러한 총 공연 횟수를 참여 행사 성격별(지역축제, 경로 및 위문 공연, 종교 활동, 통일 관련 행사, 개인/기업/지역단체 초청공연)로 분류하여 분석해보았다<그림 2>. 평양예술단이 가장 많은 공연을 가진 곳은 단연 지역축제였으며, 서울 밖 지방의 크고 작은 축제를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경로 및 위문 공연이 2006~2007년간 평균 17%의 활동영역을 참여하고 있었으나, 2008년은 33%로 참여율이 급증하였는데 이것은 평양예술단이 서울문화재단과 한국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서울사랑의 문화나눔'과 '신나는 예술여행' 행사 단체로 선정되어 서울 및 전국 각지의 복지관, 요양원, 양로원에서 다수의 공연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많은 탈북인 예술단체가 교회공연 프로그램을 따로 편성하고 있듯이, 평양예술단도 기독교 선교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남북한 평화통일



〈그림 1〉 '평양예술단'의 연간 공연 횟수



〈그림 2〉 '평양예술단' 연간 공연성격별 분류

을 기원하는 행사 역시 평균 16%를 차지하면서 계속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특히 2009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지방 시도협의회 공연을 담당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통일 관련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가 지날수록 개인/기업/지역 주최와 같은 초청공연, 홍보를 위한 방송활동의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며, 이것은 평양예술단 공연이 점차 조직, 체계화되고 외부로 알려지면서 일회성 공연보다는 특정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 혹은 지원을 받아 공연을 하는 식으로 공연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평양예술단이 서울보다는 지방공연을 주 활동장소로 되고 있으며 어르신 관객을 주관객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8년 예술단 공연활동의 최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평양예술단의 공연 프로그램 구성안(표 3)을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의 작품순서는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작품구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총 23작품으로 짜인 90분 공연 프로그램은 음악과 무용이 중심이 되고 2008년

〈표 3〉 '평양예술단' 프로그램 구성안 (90분)

2008 공연프로그램		2009 공연프로그램	
공연종목	제 목	공연 종목	제 목
합창	반갑습니다	합창	반갑습니다
독창과 무용	고향의 봄	독창과 무용	고향의 봄
마술	지팡이, 비둘기 재주	만담	내가 본 대한민국
군무	명절날	군무	쟁강춤
인형춤	춘향도령	2중창	평양처녀서울에시집와요
아코디언독주	카추샤 연곡	2중창	노들강변
아코디언2중주	트롯트 연곡	인형춤	춘향도령
군무	샘물터에서	아코디언독주	씨코스 렌즈
3인무	소녀의 기도	아코디언2중주	빠리의 하늘아래
2중창	평양처녀서울에시집와요	물동이 춤	샘물터에서
독창과 방창	휘파람	3인무	소녀의 기도
쌍무	날 좀 보소(밀양아리랑)	독창과 방창	휘파람
군무	쟁강춤	3중창	아리랑 연곡
독창	금강산 타령	군무	아박무
	사랑의 밧줄 등 메들리	쌍무	날 좀 보소(밀양아리랑)
군무(마술춤)	삼천리의 사계절	독창	새타령
독무	장고춤	3인무	부채춤
독창	심장에 남은 사람	마술춤	삼천리의 사계절
	새타령	독창	그리운 금강산
군무	고구려 무사들	독무	장고춤
노래와 무용	아리랑 연곡	군무	평화의 비둘기
합창	다시 만납시다	합창	다시 만납시다
종장	우리의 소원은 통일	종장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에는 마술, 2009년에는 만담이 포함되어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했다.

본 연구에서는 무용 분야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공연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무용작품인 <고향의 봄>은 분단이전 남북한이 모두 함께 불렀던 가곡 '고향의 봄'의 노래를 맞춰 추는 창작춤으로 두 겹으로 나뉜 긴 치맛자락을 양손으로 잡아 타원

형을 만들어서 마치 만개한 꽃을 형상화하는 이미지가 인상적인 춤이다. <쟁강춤>은 무당춤을 재창조하여 만든 것으로 쟁강 소리를 내는 팔찌를 착용한 무용수들이 빠르고 절도 있으며 화려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후반부터는 부채를 들고 추는 춤이다. 이전의 남북한 공연예술 교류 때 북한 교환공연단이 자주 보여주었던 레퍼토리로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작품이다. <춘향도령>은 단오명절에 춘향과 이도령이 그네를 타면서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을 무용화한 작품이다. <샘물터에서>라는 제목을 가진 물동이춤은 <쟁강춤>과 함께 널리 알려진 북한춤으로 한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뺏아 내린 여성무용수들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나와 물을 기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물동이에 손을 대지 않은 채 머리에 올리고 춤추는 장면이 관객의 박수를 이끌어낸다. 3인무 <소녀의 기도>는 서양곡에 맞춰 추는 북한식 현대무용으로 계절을 상징하는 4색의 의상을 무대 위에서 갈아입는 <삼천리의 사계절무용>과 함께 민속적인 색채보다 현대적 감각이 담긴 작품이다. 그밖에 밀양아리랑 민요에 맞춰 춤추는 <명절날>, 고구려 무사들의 힘찬 기상을 그린 체육무용 <고구려무사들>, 그밖에 전통무용을 재창작한 <아박무>, 신무용을 북한식으로 계승한 <장고춤>, <부채춤>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빠른 속도로 춤이 진행되고 스타카토 식으로 동작을 분절하는 경향이 강한 작품들이며, <소녀의 기도>와 <삼천리의 사계절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북한에서 민속춤이라 불리는 작품이다. 여기서 민속춤이란 '전근대시대 혹은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져 계승된 작품 뿐 아니라, 신무용 도입이 본격화된 1930,40년대 이후에 새로 안무된 작품 중 민속적 분위기를 내는 작품까지를 포괄하는 말이다'<sup>9)</sup>. 따라서 북한의 민속춤은 전통의 원형 형태 그대로를 보존하려는 한국의 민속춤 개념과 다른 것이다. 복고주의에 반하고 서구의 것을 민족화 하는 동시에 종교적, 계층적 내용을 제거한 민속적인 색깔을 담은 창작춤 이라고 볼 수 있다.

9) 이영미(2003). 『남북한 공연예술의 대화 : 춘향전과 초기 교류공연』. 서울 : 시공사.

## IV. 탈북인 예술단체의 사회문화적 의의

### 1. 사회문화적 정체성

평양예술단의 성격 및 공연 현황 조사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탈북인 단체의 예술 활동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평양예술단의 공연 프로그램 대부분은 민속무용에 속하고 있는데, 기존의 북한 공연예술의 관한 문헌을 살펴보면 민속 무용은 북한 무용의 유형 중 하나라고 분류하고 있다.

북한무용의 발달 과정은 최승희의 영향을 받아 처음에는 일제시대부터 이어온 신무용(신흥무용)으로서의 조선 민족무용과 서양식 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이 60년대 와서는 민속무용으로 개발하게 되었으나 70년대 이후부터는 그 춤이 훨씬 혁명적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피바다식 가극무용이 공연되면서 지금의 북한 민족무용이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병옥, 2002, p. 155)

즉, 북한무용은 전통의 현대화와 서구문화의 민족화를 통해 60년대에는 민속무용, 70년대 이후에는 피바다식 가극무용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 무용은 이념과 체제적 내용을 담은 혁명무용, 민속무용,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형상화한 전설무용, 공연자가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가무, 피바다식 가극무용, 여러 장르의 혼합형식인 음악무용 이야기, 무용소품을 모아놓은 무용조곡 등으로 유형이 나뉘진다고 설명한다.<sup>10)</sup> 또 다른 문헌에서도 북한 공연예술의 대표 장르가 가극(혁명가극과 민족가극)임을 밝히고 음악무용서사시, 음악무용서사시극, 음악이야기, 무용이야기 등이 발전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북한 공연예술의 특징으로서 '장르의 대형화, 종합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sup>11)</sup>

평양예술단 뿐 아니라 한국사회 내 대다수의 탈북인 예술단체들이 북한무용의 다양한 형태 중 민속무용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북한의 국가주의나 혁명주의적 작품을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한국 관객이 갖게 되는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0) 이병옥(2002). 1990년대 이후 우리식 북한무용의 현황과 전망. 『한국음악사학보』, Vol. 28, 135-161.

11) 박영정(2003). 『남북한 공연예술의 대화 : 춘향전과 초기 교류공연』. 서울 : 시공사.

보인다. 왜냐하면 민속무용은 분단체제 이전의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19세기 말 까지의 전통문화와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탈북인 예술단체가 노년층의 관객에게 큰 호응으로 얻고 그들을 주관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북한의 민속춤이 전통을 고수하려는 한국의 민속춤과 동일한 형태로 계승, 재창조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향의 봄>, <밀양 아리랑> 등과 같은 가곡 또는 민요, 춘향전이란 친숙한 소재, 단오명절이라는 상황적 배경, <장고춤>, <쟁강춤(무당춤)>, <부채춤>과 같은 익숙한 레퍼토리는 한국 관객도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게 한다. 또한 공연프로그램 중 <소녀의 기도>, <삼천리의 사계절 무용>은 민속춤에는 속하지 않으나, 체제 선전 내용이 담기지 않았으며 즐거리가 없는 시각적 볼거리 제공에 치우친 작품이다.

다시 말하자면 탈북인 예술단체의 공연 프로그램은 한국 관객의 작품 수용력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한 간의 심화된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분단 이전의 것을 중심으로 하여 한민족적 동질감을 형성하고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탈북인 예술단체와 북한 예술단체가 근본적으로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작품 구성 이외에도 탈북인 예술단체가 북한 예술단체와는 구별되는 정체성은 무용수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철저한 개인 교습과 조기교육을 통하여 최고무용수 양성이라는 고도로 전문화된 예술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다<sup>12)</sup>. 남북 공연예술 교류사업 때 보았던 북한 무용수들이 보여주었던 부드러우면서 절도 있는 움직임 기교와 통일된 감정 표현은 탈북인 예술단체와는 완성도면에서 차이가 있다. '평양예술단' 관계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탈북인 예술단체가 북한에서 예술 활동을 했던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이지만, 전문적으로 무용을 전공한 단원의 부족으로 예술단 입단 후 비 무용전공자들이 무용작품을 배워서 공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표 2>의 재북시 탈북인의 직업별 통계에서 나타나듯, 예술·체육 분야에서 활동했던 탈북인은 전체의 1%에 불과하고, 30대 이후 탈북인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실제로 전문 무용수로서 활동할 만한

12) 이병욱(2000). 남한과 북한 무용의 양상비교. 『몸』. 7월.

탈북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낮은 연령대의 무용수 영입, 그리고 무용공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수의 탈북인 예술단체에서 한국인 무용수의 입단을 시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평양예술단에서는 한국인 무용수를 영입하여 공연활동을 하고 있다. 탈북인 예술단체와 북한 예술단체는 북한무용을 보여주는 공통분모를 지니지만, 한국사회 내 탈북인 혹은 한국인이 행하는 북한 춤은 북한 무용수가 추는 그것과는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가 있다. 이는 인도의 춤을 한국인이 있는 그대로 재연하더라도 한국인이 추는 인도 춤은 이전의 인도 춤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과 유사한 원리이다. 다시 말해, 춤을 추는 무용수의 개인적 역사와 특질, 사회 등의 문화는 춤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탈북인 예술단체는 북한무용의 모든 장르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접근이 용이한 민속춤을 주로 공연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활동한 전문무용수보다는 한국에서 북한 춤을 훈련받은 탈북인 혹은 한국인 무용수라는 점에서 북한 예술단체와는 차별화됨을 알 수 있으며, 점차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고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호미 바마가 모든 문화적 정체성은 그것 자체로 타고난 것이 아닌 다른 문화와 함께 충돌, 상호교류, 동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혼성적(hybrid)이라고 말했듯이<sup>13)</sup>, 탈북인 예술단체는 북한과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혼성 되어 있는 제 3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 2. 사회문화적 가치

그렇다면 이러한 탈북인 예술단체의 공연활동이 지니는 사회문화적 역할과 가치는 무엇일까? 우선 탈북인 예술단체의 활동을 통해 탈북인들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탈북인 예술단체를 통해 한국사회의 적응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 탈북인들은 탈북과정 중 죽음을 넘나드는 고난과 도피 생활 속에서 정상 가족 형태보다는 편모 가족 구성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

13) Bhabha, H.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p. 6.

은데, 예술단 활동을 통해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이들의 존재를 당당하게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국내에 정착할 때 제한된 직장 즉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머무르지 않고 탈북 여성의 사회 진출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탈북예술인총연합회가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관 인증을 받았다는 점 역시 탈북인 단체가 변두리에 위치하는 소수집단이 아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부로부터 활동을 인정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탈북인 예술단체의 공연활동은 집단 내 공동체적 기능을 이행하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이 보여주었다는 가치도 지닌다. 그 동안의 남북 공연예술 교류는 남북한, 더 나아가 주변국의 정치적, 경제적 정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왔기에 일회성으로 그치는 행사성 교류가 대부분이었다. 진정한 의미의 교류를 통한 남북한의 문화적 통일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라 예술가의 내적 교류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소규모 일상적 교류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sup>14)</sup>.

이러한 관점에서 탈북인 예술단체는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대립관계에서 직접적으로는 벗어나 있으며, 물론 한국 내에서도 북한 체제 선전용 공연에 대한 간접적 제재는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비교적 자율적 활동이 가능한 공연집단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통일 이전의 충분한 문화교류를 위해서는 다르게 발전된 남북한 문화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sup>15)</sup>. 탈북인 예술인의 한국 사회 내 활발한 공연활동은 한국인의 북한 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될 것이다. 민속춤 중심으로 한 공연구성은 북한 춤에 대한 한국인의 이질감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다주며, 또한 한국인 무용수 영입은 북한 춤을 소개한 공연을 한국 무용수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이미 과거의 형식적 교류보다는 한걸음 나아간 문화교류 형태라고 보인다.

앞에서 설명한 북한 예술단과는 차별화된 탈북인 예술단만의 문화적 정체성은 북한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질감 해소를 위한 방법이 두 문화의 차이를 없애고 동

14) 박영정(2003). 『남북한 공연예술의 대화 : 춘향전과 초기 교류공연』. 서울 : 시공사.

15) Ibid.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천천히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이 삼는 방법으로서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탈북인들의 예술활동에 대한 정의와 남북한 문화융합의 하나의 사례로 이들의 사회적 기능과 미학적 측면의 가치를 조명하였다. 춤 현상을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춤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찾으려고, 한국사회 속 탈북인 예술단체의 공연활동, 특히 무용공연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였다. 탈북인 예술단체 활동은 국내 탈북인의 양적 팽창과 국내 정착 전개 과정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동시에 남북한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문화적 통일이란 오랜 숙원과도 긴밀한 연계성을 지닌다.

2009년 현재 1만 5천명에 이르는 탈북인들은 90년대와는 달리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탈북인 단체의 설립이다. 대부분의 탈북인 단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거나, 해외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체들은 탈북자들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와주며 탈북자들이 한국 내의 정착을 도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중 예술단체의 공연활동은 탈북인들의 생계유지와 공동체 형성 뿐 아니라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선입견과 북한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해소한다는 문화적 의미를 가진다. 그 동안 남북한 간의 대립된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체제 안에서는 서로의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생각 아래 공연예술 교류를 통해 한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기존의 공연예술 교류 사업은 정부차원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어렵기에 예술가들의 빈번하고 가까운 교류를 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점에서 이념 체제에서 벗어나 빈번한 공연활동과 작품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지녔다는 점에서 대안 책으로서 국내 탈북인 예술단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사회 내 탈북인 예술단체는 북한 내의 예술단체와는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는데, 이는 탈북인이 북한 문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성, 상호작용, 동화작용을 걸쳐 북한 예술단체와는 다른 그들만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 이전 남북이 공유했던 전통문화와 일제 강점기 식민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북한의 민속춤을 중심으로 한 공연 레퍼토리로 구성하고 있다. 탈북인들의 예술 활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 민속적 주제를 다룬다. 남한의 지역축제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민족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과정에서 점차 북한무용 그 자체와 다른 방향에서, 그리고 남한 문화와도 어느 정도 동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한국인 무용수를 영입하고 남한의 동시대 문화를 수용하여 탈북인 예술단체만의 혼성적(hybrid)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사회문화적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탈북인 예술단 활동을 통해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말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정치적인 면에서 자유로운 남북한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어 간다. 이들의 활동은 부분적으로 남북한의 문화적 융합을 시도해 간다는 측면에서 한국적인 미의 새로운 탐색이라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탈북 예술단체의 활동은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

무용은 다양한 형태로 그 흐름을 만들면서도 분명한 고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 무용은 늘 새로운 그 무엇을 만들어가면서도 어떠한 명확성을 요구한다. 신체 감각적 경험으로서의 무용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무용자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의미를 생산해 내는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무용의 가치를 역사와 사회 속에 새롭게 위치시키는 일은 의미생산과 해석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다. 오랜 기간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해 온 동일한 민족의 문화예술이 또 다른 토착화의 과정에서 공존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은 남한과 북한 예술에 대한 각각의 정의 그 이상의 무엇을 만들어 갈 것이다.

####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07). 『새터민 정착과정 실태조사』.

- 김상철(2003).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와 동질성 회복방안. 『복지행정연구』, 제 19집, 297-321.
- 김성구(2008). 『국내외 북한이탈주민 실상과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경아(2005). 무용의 학문정립에 관한 고찰. 『민족무용』, 제 7호, 11-32.
- 민경찬(2000). 남북한 음악교류의 현황과 미래. 『학생생활연구』. 학생생활연구, No.5, 111-119.
- 박영정(2003). 남북 공연예술 교류의 흐름과 전망. 『남북한 공연예술의 대화』. 한국 예술연구소 엮음. 시공사.
- 성기숙(2000). 북한춤의 현실적 수용방안 모색해야. 『댄스포럼』, 제 7호.
- 이병옥(2000). 남한과 북한 무용의 양상비교. 『몸』, 7월.
- 이병옥(2002). 1990년대 이후 우리식 북한무용의 현황과 전망. 『한국음악사학보』, Vol. 28, 135-161.
- 이영미(2003). 『남북한 공연예술의 대화 : 춘향전과 초기 교류공연』. 서울 : 시공사.
- 장순향(2004). 민족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무용인의 역할. 『한국체육학회지』, 43(2), 417-424.
- 정주신(2007). 『탈북자문제의 인식』. 파주 : 한국학술정보.
- 통일부(2008). 『통일백서』
- 평양예술단(2009). 홍보팸플렛.
- 평양예술단(2008). 홍보팸플렛.
- 황경숙(2006). 『북한무용의 이해』. 파주 : 한국학술정보.
- Bhabha. H.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논문투고일	2009년	2월	28일
심사일		3월	4일
심사완료일		3월	25일

**Abstract****An Investigation into North Korean Refugee's Performing Arts Company in South Korea in Terms of Sociocultural Identities and Values**

Kyung-Ah, Na · Seok-Jin, Han

*Professor/Master of Arts**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University of Surrey*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understanding a dance event within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rather than describing formal structures and movements within a dance, and then examines how its meanings or values in the contexts are revealed and exposed through performances, especially dancing. The paper begins with two academics questions about North Korean refugee's performances in South Korea: What is a cultural identity of North Korean refugee's performing arts company in the society? What kinds of sociocultural values does the company have?

The social context of the company is closely relative to an influx of North Korean refugees into South Korea and a process of their adaption to new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s, the cultural context of the company is linked to performance exchang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for cultural unification. Therefore, in order to resolve the above two questions, previously written material about the social posi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s well as the past performing arts exchang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re explored. Moreover, 'Pyeongyang Performing Arts Company' is selected as a case study to gather detailed sources of its specific repertoire and to have interviews with performers or officers of the company.

By analysing collected information, firstly, it is shown that the cultural identity of North Korean refugee's performing arts company is distinct from a domestic company in North Korea since the former has a hybrid identity where North culture conflicts with, interact with, and assimilate into South culture. This hybrid identity can be illustrated not only from folk dances as main repertoire but also Korean dancer joining in the company.

Secondly, to participate in North Korean refugee's performing arts company

leads to earn money, to form a social community with other refugees, and to get involved in the mainstream of the society. As well as social values of the company for the refugees, the company's own hybrid cultural identity suggests an ideal way to recognize heterogeneities between South and North culture, appreciate the other side, and coexist together.

**keywords:** North Korean refugees(탈북자), performing arts company(공연예술단체), sociocultural context(사회문화적 맥락), hybrid cultural identity(혼성적 문화 정체성)